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4월 17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 458장(통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 “행13:20-23”(구약p.210) / 가족 중에서
- 말 씀 /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인도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 20절의 ‘그 후’는 언제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허락하신 것은 언제까지입니까?(20절)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그 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후’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워진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 저들의 지도자로 사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2. 21절의 ‘그 후’는 언제를 의미하며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21-22절)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그 후’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아닌 왕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20절상). 이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40년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스리게 하셨다가(20절하) 폐하셨습니다, 사울을 대신하는 왕으로 다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22절상).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알고 들어주시는 분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기준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22하-23

절)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서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22절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로 예수님이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3절).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성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를 인천서부교회로 부르신 분도, 그리고 서부교회의 일꾼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22-23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고전10:31)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우실 때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 즉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삼상16:7). 마음은 생명의 근원의 자리입니다(잠4:23). 이 마음은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알고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 기 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송 / 새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 믿는 자”
- 주기도문 / 다같이

*광고 :

- 1.금주부터 오후예배와 수요일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예배를 정상화합니다. 단 주일 오후 식사는 당분간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2.금주 수요일예배는 구역연합예배로 드리며, 지역특송 순서도 있습니다(마스크착용).
- 3.교우들의 건강과, 코로나19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합시다.